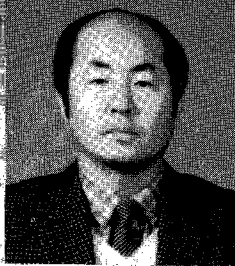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자연의 개발과 분노



배 성 황
(주)삼화농원 대표이사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개발과 도전에 따른 자연의 대응자세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때로는 체념한 듯 받아주는가 하면 때로는 무한한 힘으로 야단도 치고 또 경고도 하며 달래기도 한다. 인류라는 슬기로운 지능을 가진 동물만 없었던들 자연은 동물, 식물을 타이르며 조화롭게 그들을 품어주면서 나름대로의 낙원을 만들어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나름대로 슬기로운 머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질적으로는 별의별 문명의 이기를 개발해 내고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자만에 빠져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도전하여 왔다.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기기는 그렇다고 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하여 주는 삼림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층의 온도를 상승시켜 기온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엘리뇨” “라니냐” 등 새로운 말을 씩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들은 이를 두려워 하여 화석연료 사용제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자연은 지극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구의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달을 비롯한 위성의 개발을 기웃거리고 있다.

아폴로(Apollo)를 쏘아 달에 인류의 발을 내디딘지는 오래되었고, 최초의 우주인인 존 글랜 미국 상원의원이 다시 인간의 노화에 대한 생체 실험차 다시 우주비행을 하여 미국이 열광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파괴의 차원을 넘어선 우주에의 도전이 아닌가? 이러다가 최근 개봉된 “Gogila”라는 영

화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엄청난 힘을 가진 변형된 동물이나 우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동안 인류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대응을 하여왔다.

생물학적인 분야에서만도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단위를 높여가며 개발하여 가고 있고, 각종 소독제나 백신 등 처절한 자연과 인류의 싸움은 언제 끝날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자연에 도전할 수 있으랴!

어떤 개발이나 도전은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고 저항할 경우에는 자연은 냉엄히 힐책할 뿐이다.

최근 우리 양계업에도 그 동안의 소독, 백신, 치료를 비롯기라도 하듯이 "J-Virus"라고 불리는 백혈병의 일종인 ML(Myeloid Leukosis)이 양계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전세계 계육생산의 15% 이상을 감소시켜 수급에 절대적인 차질을 빚게하여 종계, 종란, 병아리 가격의 이상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종란가격은 정상가격 US\$ 13(한화 180원/개당)에서 US\$ 25(한화 337원/개당)까지 약 2배 상승되었고 육용종계 가격도 정상가격 US\$ 2.2(한화 3,000원)에서 US\$ 2.9(한화 4,000원)으로 상승했는가 하면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질병은 널리 알려진 대로 수직감염과 수평감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이 병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방법 밖에 없

다고 한다. 일부 품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품종에서 구분없이 발병하고 있고, 다른 질병과 복합하여 발병시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질병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선발, 개량하거나 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계사의 조건이나 사육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계장에 이 질병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양적인 면에서의 계육수급에 차질을 빚고, 계육수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HACCP 등 식품위생이 소비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이 마당에 소비위축으로 연결될까 걱정이 되고 있다.

물론 언젠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병을 극복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리라고 기대가 되나 이 질병의 극복은 또하나의 백신프로그램이 추가되든지 고단위의 치료제가 요구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이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변이, 변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또한 자연의 도전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페니실린, 우두백신, 폐결핵 퇴치, 각종 성병, 암, 에이즈(AIDS)의 출현과 인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양계산업에서도 각종 백신이나 치료제가 끊임없이 개발될 것이다.

변이형으로 변화된 IB, ND, IBD, MD, ML로 이어지는 자연과 인간과의 대립속에 새로운 질병의 발생, 개발, 도전으로 연결되는 흐름은 한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계